한국공학 70주년을 맞이해 우리협회 회원 중 전문대학 전기공학과 졸업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동양공업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김 교 일
동양공업전문대학 학부장

한국공학 70주년 즈음하여...

취재 | 제도연구실 손 영 선

Q 44주년 전통의 긴 역사를 지닌 동양공업전문대학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1965년 4월에 기계과, 전기통신과, 건축과의 3개과 15학급으로 개교한 동양공업고등전문학교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1976년 1월에는 효성그룹을 창립하신 고 조홍제 회장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었습니다. 고 조홍제 이사장께서는 공업발전을 위한 인재배출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서 교사 신축 등 학교시설 확충과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시기가 동양공업전문대학이 현재에 이르는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부를 비롯하여 6개 학부(18개과)와 2개 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5,8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중 2008학년도 장학금 지급률이 최고이며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졸업자 2,000명 이상의 A그룹에서 서울지역 전문대학 정규직 취업률 최고 대학으로 발표되었고, 취업률 신뢰도 조사결과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제철, 롯데제과, 효성, NHN 등과 맞춤형 인재육성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미국 Hawaii Pacific University, 일본 Takuma National College of Techology, 중국 북경물자대학(Beijing WUZI University) 등 해외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상호방문교류, 유학지원, 어학연수 등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Q 동양공업전문대학 등 전국 11개 대학과 기업들이 힘을 합쳐 연합 산학협력체 "커리어 패스(Career Path) 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커리어 패스(Career Path)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11개 대학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체제이며 한국인재연구원과 함께 창립했습니다. 기업쪽에서는 삼성코닝정밀 · 두원공조 · 하이마트 · 영림원 소프트랩 등이 제휴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통합해 전국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것이 커리어 패스의 목표입니다. 각 대학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 연구합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어 인재양성 및 채용정보를 공유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체 없이 공급하며, 기업들로서는 필요한 인재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접촉하거나 기업이 개별 대학에 문의하는 방식보다는 대학들의 연합 인재풀인 커리어 패스를 이용하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는 것이 커리어 패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커리어 패스가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동양공업전문대학은 수험생 및 기업체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학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부장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 무엇보다도 좋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 주고 또 졸업생들을 좋은 기업들이 선택을 해주는 선순환이 잘 이루지고 있는 까닭에 학교의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선순환의 동력

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 동력으로서는 역시 교육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시설이나 실습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면모는 어느 학교나 비슷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아닐까요. 동양공업전문대학은 학사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수업을 철저히 하고, 평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성적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은 열심이며,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항상 고민합니다. 학생들은 진지하며 교수들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학계에 계시면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실업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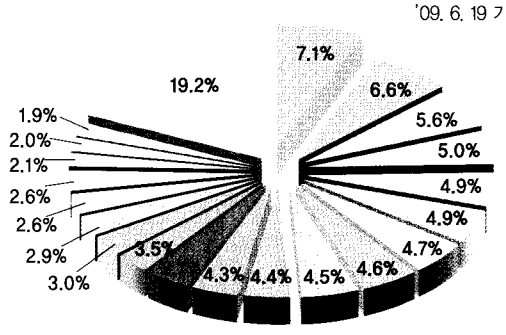
A 저는 먼저 이공계 위기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때 뛰어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로를 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것 외에도 다른 가치들이 두루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지요. 비록 큰돈을 못 벌더라도 인재들이 그런 의미에 투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공계의 공부 또는 업무는 인문사회계의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이공계는 일찍 퇴직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동량이라는 자부심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공계 실업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점점 더 이공계를 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많이 개인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상태가 되었기에, 나라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는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급여가 좀 더 많다고 해도 공부 및 업무가 어려운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를 선호합니다. 어려운 공부도 원인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공계는 일찍 퇴직한다는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이공계 인력의 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비정규직으로 싼 임금에 고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결과 능력있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를 위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Q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의 강점은 무엇이며,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2년제인 전기시스템과, 정보전자과, 반도체전자과와 3년제인 무선정보통신과, 네트워크정보통신과의 5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의 강점으로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수진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의 교수님들과 같이 학문의 깊이, 산업현장의 경험 및 학생교육의 열의 및 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두루 갖추고 계신 분들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학부 사무실의 6분의 조교선생님들은 교육현장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우리 학부의 교육시스템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이 부분이외에도 환경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가 가까워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구로디지털단지의 산업체들과 프로젝트 및 기술지도를 활발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 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스템과는 현대제철과, 반도체전자과는 삼성전자와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대기업과의 주문식교육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는 그 동안 교과과정의 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선하여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대학교 전기관련학과 졸업생 협회 등록현황

'09. 6. 19 기준



동양공업전문대학 7.1% | 조선이공대학 6.6% | 동서울대학 5.6%
명지전문대학 5.0% | 인천전문대학 4.9% | 인하공업전문대학 4.9%
수원과학대학 4.7% | 영진전문대학 4.6% | 대림대학 4.5%
동의과학대학 4.4% | 유한대학 4.3% | 영남이공대학 3.7%
전주비전대학 3.5% | 경원전문대학 3.0% | 포항대학 2.9%
부산정보대학 2.6% | 경복전문대학 2.6% | 대덕대학 2.1%
울산과학대학 2.0% | 오산대학 1.9% | 기타(59개 공과대학등) 19.2%